

“NGO 활동으로 세상 밝힌다”

능인선원 3월 ‘새희망 네트워크’ 발족... 구룡사 ‘붓다월드’ 올 상반기 출범

도심포교에 진력해 온 서울 능인선원과 구룡사가 신도들의 역량을 모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일주반 바름으로 내딛는다. 능인선원은 빠르면 올 가을 정보와 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시민사회단체 ‘새희망 네트워크(New Dream Network, NDN)’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능인선원(선원장 지광)은 1월 27일 ‘새희망 네트워크’ 관련 간담회를 열고, 3월 중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정·재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2백여 명이 참가하는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능인선원과 산하 복지법인이 주도하게 될 새희망 네트워크는 이사회와 정보 법률 문화 노동 환경 통일 국제협력 등 12개 상임집행위원회, 아동·청소년·

인종차별 등 10개 전문센터와 총괄사무처를 두고 각 위원회별로 해당 정책 연구 및 개발, 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능인선원은 새희망 네트워크의 슬로건을 ‘서로서로 하나로’로 정해 종교를 초월한 ‘범시민사회단체’로 집중 육성해나간다는 운영 밑그림도 완성했다. 능인선원은 이외에도 △불교 NGO단체 재정 지원 △참여연대, 경실련 등과 연대 활동 △관변단체화된 시민단체 감시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기존 능인선원 장학회를 확대 개편, ‘새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시민운동가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능인선원은 새희망 네트워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재정·인력도 지원한다. 자립기반이 없는 창립초기 운영·사업 추진비를 전액 부담하고, 후원회원 모집

과 수익사업 전개 등을 통해 재정지지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광 스님은 “최근 민주화보상심의원 회로부터 출가 전 민주화운동경력을 인정받아, 그간 구상만 했던 시민단체 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새희망 네트워크를 사회 갈등을 중도사상으로 해결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도) 올 상반기 중 NGO ‘붓다월드’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해외구호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초부터 해외구호활동을 펼쳐 온 구룡사는 이를 전담할 NGO ‘붓다월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1월 초 문화관광부에 NGO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붓다월드’는 지난해부터 인도, 네

팔, 티베트, 북한 등에 대한 구호활동을 진행해왔다. 공식 출범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조직 구성은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붓다월드’는 구룡사에 사무처를 두고 의료팀을 비롯해 건설팀, 봉사팀, 문화팀 등 팀단위를 기본골격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들을 중심으로 모집된 회원들을 각 팀에 배치하는 등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이미 갖췄다. 또 구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와 인터넷방송국, 잡지사, 극단 신시등도 붓다월드에서 귀속시킬 계획이다. ‘붓다월드’는 2003년말부터 구룡사를 비롯해 14개 국내·외 구룡사 포교당에 NGO기금 전용 불전함을 설치하는 등 기금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박병영·김철우 기자

스리랑카에 유치원 개원

진각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호암)은 1월 10일 스리랑카 네곰보에 위치한 JGO센터 내에 유치원을 개원하고 지역의 만 6세미만 미취학 아동 50여명을 입학시켰다.

이번에 개원한 유치원은 2000년 7월 진각종교 설립, 컴퓨터 직업훈련을 진행해온 JGO센터강당 중 일부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네곰보 지역 어린이들이 한달에 250루피(한국화 2500원)정도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평불협, 대규모 방북 추진 이사회서 사업계획 확정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다, 이하 평불협)가 올해 대규모 방북단을 구성해 북한사람 성지순례에 나선다. 또 재북 작가인 김기만 화백의 작품전시회도 개최한다.

평불협은 1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성북동 통일법당에서 상반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평불협은 이외에도 금강국수공장 운영을 지속하고 생필품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평불협은 또 결식아동과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통일유아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대한민국 통일사에 미술대전을 진행한다. 유철주 기자

“상담자는 바로 보살”

불교상담개발원 세미나

불교상담개발원은 1월26일 공주 마곡사에서 ‘상담자, 내면의 붓다를 만나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상담자’를 발표한 윤다 스님(동사십 이사장)은 “상담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돕는 불교적인 행위이며, 상담자는 바로 보살이다”라고 주장했다.

윤호근 교수(가톨릭대 심리학과)는 “상담을 통한 자비의 경험은 참 존재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연구소 개소·노인취업 주력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고행와 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가칭)활기찬미래연구소’를 5월에 개소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는 1월 25일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활기찬 미래 연구소 개원을 비롯해

김강진 기자



대구 파계사 사부대중이 칠성시장에서 거리탁발을 하고 있다.

위한 손길이 이어졌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스님과 신도 3,000여명은 1월 22일 3개조로 나눠 대구 백화점앞, 칠성시장, 대구역 등 대구 도심에서 자비의 탁발을 실시했다. 영남불교대학 신도들은 자비의 백등 모금함을 저마다 들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남아시아 지진피해 구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파계사 율원장 철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50여명도 1월 24일 대구 칠성시장 앞에서 반야심경과 발원문을 봉독한 뒤 칠성시장 곳곳을 다니며 부처님의 동체대바사상을 전하며 남아시아 피해민 돕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한명우·천미희·남동우·배지선 기자

전국서 ‘자비의 탁발’

남아시아 돕기 부산·대구 등서 잇따라

남아시아 지진피해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자비의 탁발’이 계속되고 있다.

속초 신흥사(주지 마근)는 강원도내 불우이웃 및 남아시아 지진피해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1월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전개했다. 신흥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모금활동을 벌여왔으며, 올해는 남아시아 지진피해민 돕기도 겸해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 범어사 본말사 사찰과 신도들도 1월 26일 ‘자비의 탁발’을 실시했다. 이날 탁발에 앞서 부산역 광장에서 가진 법회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서로 나누며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성금모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도 남아시아 지진피해민 돕기 위한 자비의 탁발 행사에서 모은 7000만원을 1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전달했다.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건강상 선방 스님을 비롯해 대중 스님들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 탁발을 했다”며 “탁발을 하면서 지역 인식이나 지역 내 불교계 단결력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도 지진피해 피해민을 돕기

크습을 통한 ‘불청 증장기 계획’ 수립, 불청 정체성 진단 포럼 개최, 중앙사무국 조직개편, 제24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장관 개정, 전국순회법회, 신규 지회 발굴, 사고지구 복원, 1지회 1문화재보호 활동, 불청인 집중 거리포교의 날 제정, 청소년 지도사 지원 및 교육, 통일 템플스테이, 만해문화대학, CMS 회원 500명 확보, 불청 100주년 기념(관)회관 건립 추진위 창립 등이다.

김지연 기자

회원 중심 대불청 만들자

증장기 계획 수립 등 2005 사업 발표

대한불교청년회가 ‘불청의 현실적 비전과 좌표 설정’ ‘단위 조직 활성화를 통한 불청의 미래 개발’ ‘불청 증흥을 위한 역량 강화’ ‘회원이 중심이 되는 불청 건설’을 2005년 목표로 선언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사업계획을 1월 23일 조계사 교육관 4층에서 열린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표했다. 분야별 사업을 살펴보면 불청TFT위

‘내 안의 부처님을 보라’

봉은사 을유년 선지식 초청법회



지관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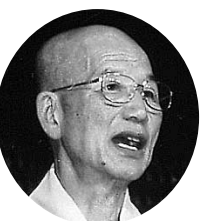
성우스님



정락스님



활안스님



정무스님



월운스님



해인스님



정념스님



해남스님



명진스님



고우스님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에서는 정조를 맞이하여 ‘내 안의 부처님을 보라’라는 주제로 을유년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합니다. 선지식(善知識)이란 수행자들의 스승을 이르는 말이며, 증생에게 나쁜 업을 버리고 선한 업을 쌓게 하는 이를 가리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을 인도하여 지혜의 문으로 들게하는 수레이며 배이며 햇불이며 길이며 다리’가 되는 선지식을 초청하여 증생들을 섭수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지식: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善財童子)는 문수보살을 선지식으로 삼고 53선지식을 만나, 결국 자신도 보살이 되었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는 이유는 선지식이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실천하는데 본보기가 되고, 수행자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53은 인간이 성불하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초청법회 일정

회차	일시	음력	초청법사	이력	비고
1	1월 16일(일)	12. 7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성도재일주간
2	1월 23일(일)	12. 14	성우스님	불교텔레비전 회장	일요법회
3	1월 30일(일)	12. 21	정락스님	용주사 주지	일요법회
4	2월 11일(금)	1. 3	활안스님	조계종 원로위원	정초 7일
5	2월 12일(토)	1. 4	정무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정초 7일
6	2월 13일(일)	1. 5	월운스님	동국역경원장	정초 7일, 일요법회
7	2월 14일(월)	1. 6	해인스님	단양 광덕사 회주	정초 7일
8	2월 15일(화)	1. 7	정념스님	월정사 주지	정초 7일
9	2월 16일(수)	1. 8	해남스님	전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정초 7일
10	2월 20일(일)	1. 12	명진스님	조계종 민추분부장, 봉은사 선량	일요법회
11	2월 27일(일)	1. 19	고우스님	봉화 각화사 선덕	일요법회



지울스님 단식 일지

지울스님의 생명이 위태롭다. 지울스님의 단식은 1월 28일 현재 93일째로 100일 가까이 진행되면서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지울스님의 어머니 임옥달(71)씨도 1월 27일부터 청와대 앞에 나와 도농봉을 점으면서 “내 딸이 죽으면 함께 죽겠다”며 정부에 대항을 요구했다.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지울스님의 천성산 지키기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짚어본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급정산 천성산 구간 노선백지화 및 재검토 공약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 등과 함께 부산을 찾아 경부고속철도의 급정산 천성산 관통을 전면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은 불교계 10대 공약에도 명기돼 전향적인 해결이 가능한 듯 보였다.

2003년 2월 5일 공약이행 촉구 부산시청 앞 1차 단식 돌입(38일간 진행)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지울스님은 부산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38일간 단식을 진행했다. 3만 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범불교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문재인 수석을 보내 재검토를 약속했다.

정부 천성산 관통 노선 확정

2003년 9월 정부의 약속은 계속 파기됐다. 재검토 약속은 사라지고 정부는 천성산 노선 확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03년 10월 5일 부산시청 앞 2차 단식 돌입(45일간 진행)

지울스님은 또 시청 앞에 자리를 잡았다. 주위의 우려와 비난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굶듯하게 단식을 이어갔다. 조계종과 정토회 등이 20만 명의 도농봉 소속인단을 모집하기로 하고 2차 단식을 희망했다.

2004년 6월 30일 청와대 앞 3차 단식 돌입(58일간 진행)

공사가 계속되자 지울스님은 청와대 앞으로 왔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58일간 계속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농봉 시민행동’을 결성해 지울스님을 위호했다.

2004년 8월 27일 정부 천성산 공사 중단 및 환경영향 재조사 약속, 지울스님 단식 해제

문재인 민정수석과 광복회 환경부 장관이 지울스님을 찾아와 천성산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을 재조사하기로 약속했다. 지울스님은 이에 단식을 해제 하고 천성산으로 돌아갔다.

2004년 10월 27일 환경부 환경영향공동조사 약속 반복에 4차 단식 진행, 1월 28일 현재 94일째

그러나 ‘천성산 공사중단, 환경영향 재조사’를 담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무섭게 환경부는 단 것을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환경부는 3일간 독자적으로 천성산을 둘러본 뒤 “문제없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울스님은 다시 단식을 시작해 1월 28일 현재 94일째 이르고 있다. 유철주 기자